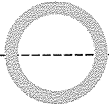


ESCO관련 기준개정안 건의



ESCO관련 기준개정안 건의

ESCO협회는 현재 마련 중에 있는 적격심사기준 등 ESCO관련 기준개정에 대한 건의안을 공단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ESCO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반영한 것으로 현재 관계기관의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인 회장 개도국 에너지관리자 연수과정 참여

ESCO협회 유제인 회장은 지난 11월 14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열린 개도국 에너지관리자연수과정에 참가, ESCO사업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개도국 에너지관리자 연수에는 레바논, 루마니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칠레, 태국, 폴란드 등 20여개국이 참여했으며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13박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유제인 회장은 이번 연수과정 중 하루인 11월 14일 ESCO사업에 대해 발표해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사업발표 후 참가자들은 이앤이 시스템 강한기 이사의 인솔로 천안에 있는 ESCO업체를 견학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번 연수참가자들은 에너지기술연구원의 한국의 에너지절약시책,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소개를 비롯해 관련 기업 등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ESCO관련 기준개정안 건의

‘ESCO사업기회로서의 기후변화협약’ 세미나 개최

‘ESCO사업기회로서의 기후변화협약’ 세미나 개최

에너지관리공단

ESCO사업투자재원다변화방안 공청회

에너지관리공단은 오는 12월 13일 오후 3시부터 산은캐피탈 8층 강당에서 ESCO사업투자재원다변화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번 공청회는 민간펀드 가능성 확인과 금융계 및 ESCO의 참여를 통한 펀드 및 ESCO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이주대 김수덕 교수가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또 산자부 신화동 서기관, 금융연구원 이상제 위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 우영호 본부장, 산업은행 에너지담당 성기영 총괄팀장, 전주대 조성환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ESCO사업기회로서의 기후변화협약’ 세미나 개최

ESCO협회는 기후변화협약 시대를 맞이하여 회원사 CEO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협약이 ESCO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세미나는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발효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ESCO의 역할과 효율적인 사업적용방안을 공유함으로써 ESCO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세미나는 오는 12월 13일 삼성서울연구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더 궁금한 사항은 ESCO협회 (02)728-4401로 문의하면 된다